



수 신: 각 팀 대표자 및 관계자

제1전 KP300N 피트레인 스타트 지연에 대해

지난 2020년 5월 17일 개최된 한국 로드레이스 선수권 제1전 KP300N 클래스 결승 스타트 직전 'FunDay' 팀 '전영재' 선수의 차량 트러블로 스타트 딜레이드 상황 발생 후 해당 선수가 피트레인에서 레이스 스타트 할 때까지의 절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1. 최초 레이스 스타트 딜레이 시 해당 차량을 피트레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지연됨.
2. 해당 차량을 피트레인으로 이동 후 규정 상의 워업랩 3분전부터가 아닌 바로 워업랩 1분전 단계로 스타트 절차가 진행되어, 이로 인해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해당 선수는 워업랩에 참가 못하고 피트레인에서 레이스 스타트.
3. 피트레인 스타트 시 후미 그룹이 피트레인 출구 라인을 통과한 후에도 해당 선수를 출발시키지 못하여 오피셜카의 후속으로 레이스 스타트. 결과적으로 해당 선수의 레이스 스타트가 지연됨에 따라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위의 상황은 시설 측의 메인 시그널 및 피트 출구 시그널의 고장으로 인해 시그널이 아닌 관제실에서 직접 피트 출구를 컨트롤하여 코스인 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 무전으로 통신하는 과정에서 교신이 원활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피해를 입은 해당 선수와 팀을 비롯한 관계자 및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KRRC 경기위원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대한모터사이클연맹 KMF
 KRRC 경기위원회